

建築士의 提言

金 知 徳

(삼화합동건축설계사무소)

다음은 본회회원인 筆者가 寄稿한 提言을 옮긴 것이다.

筆者는 이 글에서 現在 우리나라 建築士들이 勉하고 있는 現實과 이에 비친 제반문제점들을 銳利하게 解剖하고 自求策을 위한 方向을 提示했다. 會員諸位의 깊은 共感이 기대된다.

/ 편집자 /

□ 폭넓은 海外로 눈돌려야

韓國의 모든 建築設計事務所의 實態는 經濟的인 与件으로 因하여 지금 계속되는 設計事務所축소와 運營面에 곤란을 받고 있는 點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自然資源이 豊足하지 못한 나라에서 일찌기 많은 建築人을 排出한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되어, 筆者는, 今番 여러나라의 建築士活動을 一見할 기회를 갖고, 現在 設計事務所를 運營하고 있는 同僚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建築設計에 多年間 從事하여 온 모든 建築設計 要員은 앞으로 海外設計에 눈을 돌릴때가 왔다고 主張하는 바입니다.

世界 各國 設計業에 從事하고 있는 建築士들 中에서도 海外業務에 밝지 못하고, 海外設計에 관심을 갖지않는 建築士들이 있다면, 韓國의 建築士도 그 하나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国力이 伸長되고, 海外 建設業으로 세계 랭킹에 跳戰하고 있는 韓國의 建設施工 能力에 比하여, 建築設計業 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 設計事務所의 能力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힘을 합치고 能力을 합하면 그 設計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作業일지라도 能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外國에 나가보면 수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韓國人으로서는 充分히 解決할 수 있는 設計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힘들어 受注한 工事中 거의 設計部分이 外國에 再用役되고 있습니다.

建築設計 일중에서 아주쉬운 것들도 全部 外國 用役회사에 맡긴다면, 이는 우리의 國庫 損失이 아닐수 없습니다.

外國에 나아가서 海外工事を 受注하고 있는 韓國의 建設 会社에 比해서 用役 設計에 從事할 수 있는 設計事務所의 숫자는 과연 몇개 회사나 될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用役 設計의 許可 限度가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後日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海外에 建設業者만 受注를 위하여 進出し킬것이 아니라 設計要員도 進出 시킬수 있는 機會를 주는 制度도 아울러 마련할 段階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資金支援을 위한 制度마련 필요

둘째,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여러가지 与件상으로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建築 設計事務所에 무엇인가 열심히 生業에 從事할 수 있는 資金을 支援 받을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다고 생각됩니다.

設計事務所의 職員은 全部 精神的인 勞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精神的인 勞動을 하고 있는 建築家에게 우선 生活에 對한 安定이 없이는 世界進出이고 作品活動이 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建築設計業界에는 진정 世界舞台에 설 專門 建築設計 要員을 너무 養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大學校에서도, 高等學校 建築教育에서도 建築設計에 對한 國際的 水準의 教育을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學校에서 優秀한 博士님과 教授님 밑에서 정말로 감쪽놀랄 建築 實力을 修鍊한 優秀한 建築學徒가 社會에 나와서 實務에 從事하게 된 後로는 거의 全部가 建設會社の 見積要員이나 建設 現場의 技術者로 從事하게 되는 事例를 자주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問題가 있는것이 아닐까요?

요즘 서울 시내에는 814개의 開業 設計事務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이 없어서 設計 作業을 못하는 事務所

가 散在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国内에 일감이 없으면 国外로의 進出을 할 필요가 絶對的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国内設計事務所의 現在狀況은 国外設計를 맡긴다해도 척척 해낼 事務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커다란 問題點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人材養成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國際水準級에 달하는 建築設計 要員을 恒時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外国에 進出할 建設業체로부터 受注한 建築設計를 무난히 소화할 人材養成에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읍니다.

미국의 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Ecology가 처음으로 탄생 했던 1960년, 도대체 環境關係 基本圖書가 어떻게 作成되고 基本되는 設計로서의 작성 요령등을 몰라서 設計 方式을 研究하는 부서를 두어서 따로 研究하게 하고 示方書 基本 圖書등을 연구 檢討하여 全國의 關係人에 수십만부를 배포하여 基本的이고 正確한 方式을 政府 次元이나 協會 次元에서 習得, 研究, 指導하여 많은 關係人을 도와 世界市場에 進出하고 있는 事實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研究 檢討하고 分析하는 일을 繼續하여 發展시켜나가고 있는 實情입니다. 제가 부러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업을 官이 主導하여 發展시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矛盾點부터 指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點에 대해서는 政府 關係人도 協會 關係인도 모두 염려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中小企業에도 해당안된 設計事務所

우리나라 設計 事務所……

평당 幾千원이면 집한채 設計할 수 있고 許可 받을수 있는 곳으로, 일부 인식되기도 하여 지금 우리의 設計事務所를 國際的인 水準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無限한 時間과 努力이 投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設計事務所에도 繼續 發展할 要素를 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設計事務所에서 많은 人材를 養成하여 그 次元의 設計까지도 할 수 있는 技術者가 되면 建設会社에서 스카웃 해 가버리고, 스카웃 된 우리 設計要員은 그때부터 設計業보다는 見績 및 建設 施工 技術分野의 能力含養에 精神을 쏟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優秀한 頭腦가 設計 業務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안시 해왔고 누구 하나 設計事務所가 國家的 次元의 外貨獲得에 기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設計를 하고, 施工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實情에 알맞는 施工 方式을 研究 檢討하여 世界市場에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國威宣揚에도 貢獻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最近에 中小企業銀行과 國民銀行에 設計事務所 職員俸給이 밀려서 中小企業의 資金을 融資 받을수 있을까 하고 訪問, 支店의 책임자되시는 분들과 對話를 나눈 일이 있었읍니다. 130여가지 業種의 企業融資 分類중에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精神的으로 優秀한 일을 해야 하며, 無限한 可能性을 가진 設計事務所의 金融支援 惠沢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美國, 日本 등지에서는 設計業에 從事하는 職業人에게는 擔保나 기타 까다로운 條件없이 銀行에서 運營資金을 支援하고 있으며 이 運營資金이 充分히 支給되므로 因해서 設計에 從事할 優秀한 人材를 建設業체나 기타 職種에 빼앗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制度的인 組織이 完全히 整理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부럽고 또 부러운 制度로 생각됩니다. 극도로 惡化된 建築景氣에서 많은 建築設計 事務所가 同苦同樂하여 數年을 함께 일했던 人材와 親知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轉職을 하게 되는, 現在의 構造는 정말로 再考해야 될것입니다.

이점 감안할때 우리는 強力한 財政的 뒷받침을 할수 있는 金融支援의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制度的 裝置가 있다면 우리도 研究 開發할 餘裕와, 先進 諸國의 優秀한 研究 論文을 導入하여 檢討, 分析할 時間的 餘裕도 있고, 外國의 建築技術을 익힐수 있는 能力있는 技術者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金融의 支援없이 매일 매일일감을 얻기 위해서 東奔西走 뛰어 다니는 設計事務所의 所長, 일이 없어 給料를 못줘서 苦悶하고 있는 所長, 事務室의 運營資金이 없었고생했던 同僚職員을 내보내고 소주 한잔하고 집에서 한숨쉬는 設計事務所 所長의 心情을 달랠수 있는 길이란, 무엇보다도 運營資金의 制度的 補完이 제일 急先務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廻해있는 가장 甚刻한 點이라고 생각됩니다.

□ 海外設計에 참여할 기회 많이 줘야

셋째, 海外設計의 參與 機會를 달라는 것입니다. 海外에서 고생하고 있는 海外建設会社의 施工圖, 일괄 도급 工事의 참여, 見績物量의 조사보고, 해외설계의 基本 패턴研究 등등 우리가 海外에서 많은 工事を 受注해 오는 만큼 실질적으로 設計補完을 要求하도록 준비된 海外建築設計의 種類는 많다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外國의 施工圖 提出方式이 달라서 어느 工事は 設計圖書의 實質的補完 없이는 아예 施工을 할 수 없도록 規定된 外國의 工事は 정말로 설계사무소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껏 海外 用役に 눈을 돌려 活動할 수 있도록 우리

韓國의 建築事務所는 機會를 얻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能力이 없어서가 아니라 機會가 없어서 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의 建築士가 中東에 進出한 建設分野의 뒤를 이어 일차적으로 必要한 圖書를 만들고 準備할 수 있도록 行政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플랜트, 공장등의 巨大한 技術人이 動員되는 그런것이 아닌 오피스, 하우스, 스쿨, 마케팅, 데파트먼트등 우리가 할 수 있는 分野를 開發할 수 있는 사람에게 進出의 門戶를 開放해 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에서도 海外 門戶를 꼭 닫아 걸고 決코 갈수없고, 할수 없는 먼곳의 物件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每年 大學校 建築科程을 履修한 卒業者數가 一千餘名이 넘고 있으나 이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한 건축기술을 실지 사회에서 使用할 制度的인 作業場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海外의 設計란 한국 건축설계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바가 있습니다. 허나, 이것을 克服하고 익혀 닦아야 우리가 앞으로 繼續 發展할 수 있는 進路가 展開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개업 建築士는 現行法으로 規定되어 있는 바에 依하면 海外일은 조그마한 어느것도 直接設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할 수 있어도 建設業體의 1개 設計部署長으로 作業할 수 밖에 없으며 海外 用役業體 登錄制度도 嚴格한 規定에 의한 統制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世界旅行의 自由化까지 부르짖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建築設計 事務所에도 協會 次元에서 設計事務所까지의 強力한 조인트 벤추얼의 오피스를 構成해서 海外것등을 順次的으로 設計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構成을 해야 하며 能力있는 設計事務所에는 海外 建築設計 문호를 더 넓혀서 作業에 前進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現行次元에서의 일만 계속 임하게 되므로, 建築士란 職業은 許可業務에 從事만 하는 類型的인 職業人이 되며 용역 등록을 필한 한국과학 기술 용역업체가 海外 建築의 모든것까지 分担, 우리의 일할 자리를 못가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現在 우리나라의 海外 用役登錄은 전체 회원수 중에서 3인 내지 4인의 設計事務所 만이 登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建築人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한 톤키 프로젝트가 外國의 用役會社에 의뢰되어 進行되고 있으며, 그 用役비란 國內 建築人이 상상 못할 엄청난 액수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더우기 國內技術人의 習得을 위해 海外용역회사와 조인트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 다녀보기도 했으나 이 外國會社와 韓國의 國內 조그만 設計 會社와의 조인트벤추얼의 기회를 주는 法的인 절차의 까다로움이란, 말 할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점도 建築에 관한 조인트벤추얼의 문호도 開放, 外國人이 우리와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건축사 사무소에 주워지도록 주선하여주는 특례를 갖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設計事務所란, 원래 작은 건축사 설계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은 자율적으로 설계자 자신이 스스로 개척 개발하여 나가도록 自由로운 제도를 두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外國의 建築設計 方式은 스스로 수년간 연구하고 또 實行하여보고 또 검토 분석하여 보고 난 다음 設計 메뉴얼로 그 정의의 한계를 發表 明文化 시킨 作業으로 協동하고, 作業하면, 많은 技術을 習得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 關係法規 改正 시급하다.

海外 용역면허를 얻기위한 규정과 申請書를 보면 정말로 建築設計를 종신 職業으로 삼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은 한번도 참여의 기회를 얻을수 없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建築士事務所는 일생동안 海外設計란 次元의 一聯의 職業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每 設計件마다 海外建設業體의 下請 베이스의 設計에 參與할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작은 設計나마 獨自的으로 遂行할 法的措置란 없을 것입니다. 筆者는 設計事務所 스스로도 受注하여 活動할수 있도록 外國人과 建築物 設計에 관한 協同으로 作業할수 있도록 設計事務所에만은 機會를 賦與해도 된다고 主張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海外建設業體가 톤키 베이스로 入札하고자 하는 매 프로젝트마다 그 全部를 海外의 英國, 美國, 獨逸, 佛蘭西 등의 用役業體에 繼續해서 作業을 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入札 參加後 落札이 될지 안될지도 모를 톤키 프로젝트의 텐더에 숫한 外貨를 消費하는것은 當然하나 이것은 全部 우리나라에서 將次는 우리가 해야할 業務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建築士法, 技術士法, 建設業法, 海外用役 免許法 기술용역법 등은 全部 開業建築士에게는 지극이 독자적인 면으로는 活動 不可한 경우가 되며 이점에 대하여서는 協同 關係인도 더 研究 檢討할 必要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위의 제안을 드렸음니다만, 우리나라도 建築士가 스스로 海外 建築用役設計受注 및 그 참여에 차츰 눈돌릴 시기가 되어 있다고 提案을 드리며 이 提案에 더욱 拍車를 加할 制度的 裝置를 大韓建築士協會는 協會대로 研究 檢討하고 개업 건축사는 각자가 자기의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며, 관계 당국은 당국대로 分析 實行할수 있는 檢討가 必要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提案하는 바입니다. <*>